

국내 최초의 국산자판기

국내 자판기 산업은 1978년 롯데산업이 일본 샤프사의 커피자판기 완제품 40대를 수입해 운영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.

그렇다면 최초 국산화를 진행한 자판기는 무엇일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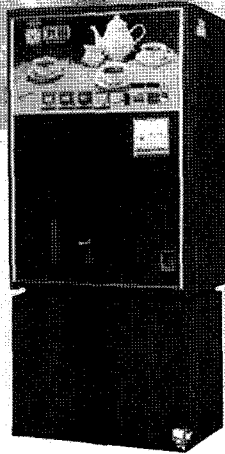
2년 후인 1980년 삼성전자와 금성사가 자판기 시장에 뛰어들면서 산업 성장이 본격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.

그 결과, 국산품으로는 최초로 금성사의 커피자판기가 선보이게 됩니다.

탁상형으로 출시된 이 커피자판기(모델명 GVK-204HS)는 커피 3칼럼과 국산차 1칼럼으로 구성이 되

었으며, 오늘날의 제품에서도 볼 수 있는 판매가능 램프, 품질 램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. 이외에도 당시는 획기적

인 컵테스트 스위치, 손님접대시 사용하는 프리벤드 스위치 등의 기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. 그러나 무엇보다 획기적이었던 것은 컵이 컵받침대로 직접 떨어지는 종래의 낙하식 수직기구로 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전동식 수평기구로 컵이 자동으로 공급되므로 조작이 간편해서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.



이 제품은 지금보면 촌스러워 보이지만 당시 출시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

당시만해도 자판기를 통해 커피가 제공된다는 사실에 무척 흥미로워 했고, 맛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.

당연히 자판기 영업도 잘되었겠죠. 당시 커피자판기는 '황금알을 낳는 거위'로 비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.